

나주시 영강동, 여수시 시전동 ‘합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지사협·주민자치위 복지 노하우 공유·화합 다져



나주시 영강동 지사협과 주민자치위가 여수시 시전동에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 영강동지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미령·성경임, 이하 영강동지사협)는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난 16일 여수시 시전동으로 합동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타 지자체의 우수한 복지 특화사업을 벤치마킹해 영강동 맞춤형 신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두 핵심 단체(지사협, 주민자치위) 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영강동지사협 위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복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여수시 시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시전동의 대표 특화사업인 ‘안부

있는 한끼 영양식 지원사업(1:2 매칭)’과 홀몸 어르신 정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관협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여수 지역 문화 탐방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하반기 영강동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성경임 영강동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선진지 견학을 진행해 단체 간 유대감도 깊어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시전동에서 배운 체계적인 복지사업 노하우를 우리 동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하여 촘촘한 마을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전원 1만5천원 혜택

화순군, ‘고인돌 가을꽃 축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정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1만 5천 원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벤트 기간에 지정된 주소(<https://www.wegive.co.kr/event/eventDetail/679?c=uzvarf>)로 접속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되며, 반드시 해당 경로를 통해 기부해야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2026년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안내와 답례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 기부에 참여하면 화순쌀 등 추가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제1회 영광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 성료

전국 궁도인 한자리에 모여 전통 활쏘기의 멋과 기량 겨뤄



영광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에서 선수들이 활쏘기를 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을 함께 나누고, 선수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각 부문 우승은 ▲단체전 무안 송덕정 ▲장년부 최근호(무안 송덕정) ▲여성부 신한순(평택 평택정) ▲노년부 이성호(하동 옥산정)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제1회 영광군수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통 체육문화의 계승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2027년 단오제 기간에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해 전통문화와 전통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궁도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 활쏘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 체육문화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진기

장성군, “필암 풍류 史(사)랑방으로 초대합니다”

24일 어린이 그림대회·음악회, 25일 최태성 역사콘서트



어린이 그림대회·음악회 및 최태성 역사콘서트 홍보 포스터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세계유산 필암서원 케이(K)-선비문화 프로젝트 ‘필암 풍류 史(사)랑방’을 연다.

먼저, 24일에는 오후 1시부터 필암서원 잔디마당에서 ‘필암서원 가을 풍류마당’이 펼쳐진다. ‘전국 어린이 필암서원 그림대회’를 비롯해 국악과 미술 공연으로 구성된 ‘필암 풍류음악회’를 선보인다.

그림대회는 사전에 신청한 전국 초·중·고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당일 공개하며, 참가자에게는 8월 도화지 1매와 돗자리 1개가 제공된다. 그림 도구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작품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총 10명을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3~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당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대상 수상작은 미디어아트로 제

작해 11월 한 달간 장성군 청사 정문 미디어파사드에 전시할 예정이다.

그림대회가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잔디마당에서 ‘필암 풍류음악회’가 열린다. 국악인 최재구의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사 테디, 국악인 하윤주의 무대가 관객들과 만난다. 일요일인 25일 오후 1시에

는 ‘큰별쌤’ 최태성 강사의 강연이 기다린다. 퓨전국악팀 ‘하늘’의 식전 공연에 이어 최태성 강사가 올해의 마지막 ‘역사토크 史(사)랑방 콘서트’를 진행한다. ‘선비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세계유산 필암서원에 깃든 선비정신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본받을 자세와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